호남 고봉·영남 퇴계 후속세대 한자리에

월봉서원, 호남권 최초 영호남 '서원 강학회' 개최
안동 도산서원과 6~8일 함께 숙식하며 '심포지엄'

광주 월봉서원은 고봉(高峰) 기대승(1527~1572)의 학덕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1654년 효종이 '월봉'이라는 명칭을 사액했으며 사우를 비롯해 동재와 서재 등을 갖췄다.

기대승은 퇴계 이황(1501~1570)과 사단칠정을 비롯한 성리논변을 펼칠 만큼 학문이 깊었다. 학계에서는 고봉과 퇴계의 교유와 논변이 조선 성리학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한다.

고봉과 퇴계의 뒤를 잇는 학문 후속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학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월봉서원은 6일부터 8일까지 안동의 도산서원과 함께 '2023년 월봉서원 동계 서원 강학회'를 연다. 무엇보다 호남권 최초로 영호남 서원 강학회를 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월봉서원장과 도산서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병일 원장의 발의로 성사됐다. 또한 행주기씨 문헌공 종중(기호석 회장)이 주최하고,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정명중 원장)과 월봉서원 숭덕회(대리 최흥렬 부이사장), 광산구(박병규 구청장)가 후원하며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호남학당이 주관한다.

영호남 '서원 강학회'는 오래된 미래이자 인문문화자원인 서원의 공부를 토대로 한다. 영남의 대표 서원인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이 지은 도산서당이 모태가 됐을 만큼 퇴계의 학문과 사상이 깊이 드리워진 곳이다.

당초 '서원 강학회'는 서원에서 행하는 집단 공부 모임을 일컫는다. 조선시대에는 '강회'(講會)라는 말이 주로 쓰였으며 오늘날로 치면 '심포지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월봉서원 강학회에서는 과거에 서원 유생들이 강회를 진행했던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강학을 주재하는 강장(講長) 6인을 비롯해 공부할 책을 읽을 강독유사(講讀有司) 6인, 논의를 이끄는 토론유사(討論有司) 6인로 구성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조강(朝講),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주강(晝講),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석강(夕講) 등 총 여섯 차례의 강학이 진행된다.

참석자 면면도 다양하다.

광주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진행된 선비체험 장면. 〈광주일보 자료〉

안동 도산서원에서는 이광호 국제 퇴계학회장을 비롯해 정순우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허권수 동방학연구원장, 김언종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병걸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등 참공부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김충호 훈몽재 산장 외에도 김경호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이원석 전남대 철학과 교수, 안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부장, 기호철 문화유산연구소 길 소장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주강에는 사전에 신청한 일반 시민도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62-630-27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청년 기자단 모집

외국인 등 5개 부문 2월 8일까지
사진·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이 '2023년 제16기 ACC 청년 기자단' 20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누리소통망(SNS)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글·사진, 영상, 삽화가(일러스트레이터), 외국인 등 5개 부문이며 국내 만 19~39세 미만 청년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자단 활동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이다.

누리소통망 인플루언서 기자는 누리소통망 계정에 ACC 콘텐츠 홍보를 전담하며 글·사진 분야 기자는 콘텐츠 홍보 게시글 작성을 담당한다.

영상 분야는 ACC 콘텐츠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외국인의 경우 ACC를 소개하는 영문 콘텐츠를 제작해 국내외 외국인에 ACC를 알리는 창문 역할을 한다.

선발된 기자는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 ACC 기자단 동창회 등 혜택 및 교육을 제공 받는다.

지원은 오는 2월 8일 오후 10시까지이며 ACC 누리집에 첨부된 지원서 등을 전자우편(roseedew@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ACC는 다음달 15일 ACC 누리집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29일까지 개최하는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에 김홍도의 '추성부도'를 선보인다. 〈광주박물관 제공〉

'이건희 컬렉션' 광주, 사랑 받다

국립광주박물관 '어느 수집가의 초대' 지난해 26만명 방문
29일까지 서화·도자 271점 전시…김홍도 '추성부도' 공개

지난해 10월 5일 개최한 국립광주박물관의 고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에 지난 12월 31일까지 총 26만4639명의 관람객이 전시실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장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인 '수집가의 안목' 주제의 '보물의 방'에서는 국보인 정선(1676~1759)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대표적 서화 작품들이 4주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광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기증품 첫 번째 지역전시로 열린 '어느 수집가의 초대'에 지난해까지 총 26만4639명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7554명에 비해 관람객이 5.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광주박물관은 새해부터는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에 김홍도(1745~1806)의 '추성부도'(보물)를 4주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추성부도'는 중국 송대 구양수의 시 '추성부'(秋聲賦)를 주제로 1805년 제작된 작품이다. 특히 단원 김홍도 작품 중 가장 말년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홍도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지만 그를 아끼던 정조의 죽음 이후의 삶은 불우했다.

'추성부도'는 이 시기 정신적인 평온을 찾고자 했던 단원의 심경과 깊은 시정이 투영돼 있다.

한편 '어느 수집가의 초대'전은 오는 29일까지 서화를 비롯해 도자류, 불교 공예품 등 170건 271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소의 'old house'

지역 신진작가 '서울 나들이'

광주시립미술관 G&J갤러리 30일까지 교류전

광주시립미술관 G&J갤러리가 2023 지역신진작가교류 기획전을 오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G&J갤러리에서 개최한다.

광주지역 신진작가들에게 중앙 무대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타 지역 작가, 기획자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기획이다.

전시 타이틀인 'Antifragile'은 '깨지기 쉬운'이란 뜻인 '프래질(Fragile)'의 반대개념으로 충격을 받으면 더 단단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작가들은 연약하지만 단단한 '기억'을 주제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단상을 다양한 매체와 형식의 작품으로 보여준다.

참여작가는 광주의 신진작가 강수지·이하영, 김소희, 이소의, 강지수 등 5명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신진작가 신상은, 이은경 작가 등 모두 7명(팀)이다.

강수지·이하영은 연민의 마음을 담아 주변으로 밀려나고 배제된 존재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설치 작품 '사랑 사원'을 선보이며 김소희는 버티기 급급했던 시절의 기억 속 자신을 묵묵히 위로하는 회화작품을 보여준다.

이소의는 흐르는 시간을 기억 속 장면과 비교해 포착하며 강지수는 엄마와 함께 바라보았던 노을에서 엄마를 떠올리며 기억을 저장한다. 신상은은 행복했던 여행지에서의 기억을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기 위해 그 순간을 기록하며 이은경은 완성된 유리의 모습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유리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의 상태를 관람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각 작업을 선보인다.

11일 오후 3시 열리는 개막식 및 작가와의 대화 행사에서는 전시 설명 및 지역교류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해외 동포·단체 초청 연수'

20일까지 접수

국립남도국악원이 '2023 해외 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연수' 신청을 받는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우리 전통예술의 해외 보존·전승 기여와 국악 진흥을 위해 해외 동포 및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악, 무용단체, 동아리 등의 초청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연수는 올해 3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8회 진행되며 매회 약 2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참가단체가 원하는 전통예술 과목을 국립남도국악원 단원들의 지도 하에 배울 수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발표회가 열린다. 이뿐 아니라 공연 관람, 국악 강의, 문화탐방의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포, 국악 단체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해외 현지 관련 기관 추천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항공료 제외 모든 비용은 국립남도국악원에서 부담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29)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건희 컬렉션' e 뮤지엄서 만나요

국립중앙박물관 2만3000점 공개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5일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전국 박물관의 소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 'e 뮤지엄'을 통해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의 기본 정보를 공개했다.

기증품 총 1만797건, 세부적으로는 2만3317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 누리집에서 소장품 번호로 '건희'를 검색하면 각각의 명칭, 재질, 크기 등을 알 수 있다.

e 뮤지엄에서는 '이건희 기증품'으로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기증품인 '정선 필 인왕제색도'(鄭敾筆仁王霽色圖)를 찾아보면 겸재 정선(1676~1759)이 조선 시대 그렸으며, 국보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사진은 모두 출처를 표기한 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박물관 측은 전체 기증품 가운데 절반 정도를 고화질로 촬영해 우선 공개했다.

/연합뉴스

내가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일까

김영일전 29일까지 양림미술관

서양화가 김영일 작가 개인전이 오는 29일까지 양림미술관(광주시 남구 양촌길 27-6)에서 열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Cognition(인식)'을 주제로 다양한 신작 26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그동안 도시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며 표류하는 도시인들의 소비문화와 군중심리를 그린 '망각시리즈'를 꾸준히 발표해왔다.

8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두 가지 소주제로 펼쳐진다.

하나는 대상과 빛의 상호관계로 드러나는 세상을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고, 인지하며 이해하는지에 대해 탐구한 작품들이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개별적 관점임에도 보편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사고 패턴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 작가는 광주미술상 오지호 특별상,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 무등미술대전 우수상, (사)광주미술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오픈식은 6일 오후 2시~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Cognition'